



'탕' ... 조선 여성의 이름으로 일제를 쏜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정운현 지음

독립운동가 24명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려준다. 이 책은 다음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에 참가한 500여 네티즌의 후원으로 맺은 성과물이다.

책에서 소개되는 김락, 이화림, 남자현, 정정화, 동풍신, 김마리아, 박자정, 박차정, 조마리아, 안경신, 권기옥, 부춘화, 김향화, 강주룡, 윤희순, 조신성, 김알렉산드라, 오광삼, 김명사, 정철성, 방순희, 이희경, 주세죽...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생경하다. 독립운동사(史)가 남성 위주로 기술돼온 탓에 이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남자현(1872~1933)은 지난해 127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의 모델이 됐다. 그녀는 독립의 지를 담아 왼손 무명지 두마디를 잘랐고, 초대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을 처단하려 하는 등 20년간 만주 일대를 누비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윤희순(1860~1935)은 국내 유일의 여성 의병장이다. 시아버지인 유흥석이 이끄는 의병들에게 탄약을 공급하는 등 뒷바라지를 맡은 "남정네만 의병을 하면 무슨 수로 하오리까"라며 여성의병대를 조직해 적극 활동했다.

또한 이 책에는 17살에 순국한 '북한'의 유관순(1904~1921)과 가슴에 육혈포를 품고 다닌 조신성(1873~



1941년 6월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기념 사진. 앞줄 왼쪽에서 2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안살림을 맡은 정정화, 5번째가 임정 의정원 최후의 여성의원 방순희이다. <인문서원 제공>

남자현·박차정·권기옥 ...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선 24인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

1953), 중국 대륙을 누빈 '여성 광복군의 만연니' 오광삼(1910~1976), 항일 무장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김명사(1907~1949),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1888~?),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활약한 박차정(1910~1944) 등의 치열한 삶이 소개된다. 문필가이자 혁명가인 신재호 선생의 부인 박자혜(1895~1944)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배출한 김락(1862~1929) 등 한반,

한본의 인생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라 부를 만하다.

현재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만4262명(2016년 1월). 이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270명에 불과하다. 이봉창·윤봉길 의거의 조력자인 이화림(1905~1999)처럼 이념문제로 일제하 항일투쟁 공적이 묻히거나 제명가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나라를 되찾는데 남자가 따로 없었다면 역사적 평가와 기념사업에도 남자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학계와 보훈당국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발굴하고 포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그분들의 이름을 역사속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문서원·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꽃 대신 총을 들고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활약한 박차정의 동상.

"내가 여자니까 못 한다는 생각은 안했어.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여자도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1996년 일흔아홉 살의 한 할머니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외아들은 이때까지 어머니의 이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좌파 진영에서 독립운동을 한 전력으로 인해 흑역사에게 누굴까봐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었다. 여성 독립운동가 이희경(1918~2012) 여사의 이야기다.

최근 출간된 '조선의 딸, 총을 들다'(저자 정운현)는 대갓집 마님부터 엘리트 신여성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을 찾았노라 싸웠던 여성

지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의 성장 이야기

꽃은 많을수록 좋다

김종미 지음



사람들에게 '팬이부리말'이라는 낯선 이름을 각인시킨 김 김종미의 소설 '팬이부리말 아이들'이었다. 김씨는 1987년, 인천 만석동 빈민가의 또 다른 이름인 팬이부리말에 들어가 '기차길옆아가방'을 열었고 이듬해 동네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기차길옆아가방'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만석동에는 "부모의 폭력을 피해 뛰

문을 열어 놓고 싶었다. '공부방 이모'가 돼 온갖 사연을 품은 아이들과 부대끼며 생활한 10년 세월을 담은 소설이 바로 '팬이부리말 아이들'이었다. 김씨가 공부방을 운영하며 겪은 30년

세월의 이야기를 담아 첫번째 에세이 '꽃은 많을수록 좋다'를 펴냈다.

'기차길옆공부방'은 '기차길옆작은학교'로 변화했고, 그녀는 2001년 강화로 들어가 농촌생활을 시작하며 인천을 오가고 있다.

그녀가 들려주는 건 '성공, 우등, 모범과는 거리가 먼, 지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의 성장 이야기이자, 외모와 능력, 뒷배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나'인 사람들의 이야기'다.

책 속에는 팬이마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가난 이야기

가 가깝 없이 담겨 있으며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이유, 공동체의 꿈,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등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우리는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자라, '개천에서 난 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혹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통해 기쁨을 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다음의 '스토리펀딩' 코너를 통해 공부방 청년들이 만든 창작 집단 '도르리'가 쓰는 '외로울 틈이 없다'가 현재 중이다. <창비·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철학 읽는 힘=사이드 다카시의 흥미진진한 서양철학 입문서. 2500년이라는 장대한 철학사를 현대에 맞는 해석을 더해 알기 쉽도록 정리한 탁월한 해설서임과 동시에, 저자가 청년 시절 서양사상에 빠져 시도한 여러 일탈적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철학사의 주요 맥락만을 골라 담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썼다. 문턱이 낮아서 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상냥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다. <프런티어·1만3000원>

▲감정노동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나를 향하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의 최일선에서 감정노동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수록했다. 다양한 사례와 인용문, 워크시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감정노동으로 잃어버린 자기 가치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나무숲·1만3000원>

▲대한민국 몰락사=순수한 해고, 공공 서비스의 영리화, 추악한 공권력, 치솟은 자살률, 곤두박질친 출산율, 바닥을 기는 행복지수는 사람보다 이윤과 경쟁을 앞세운 한국 사회의 아만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집권 기간을 '대한민국 몰락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난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2년을 반드시 '지옥탈출 모색기'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겼다. <오마이북·1만6000원>

▲음식윤리학=음식의 본질과 음식윤



리에 바탕을 둔 식문화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음식의 과학적, 공학적 바탕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한 강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식품공학자 김석진 교수는 음식윤리학은 독특한 분야를 개척해왔다. 음식윤리학은 '음식에 대한 윤리적 고려'라고 정의되는 응용윤리의 한 종류다. 저자는 이를 음식을 만들고, 팔고, 먹는 모든 사람, 음식인이 지켜야 할 도리로 보고 있다. <구리·2만5000원>

▲충분하다=199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시선집 '끝과 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폴란드의 국민 작가 비오스와 짐보르스카의 유고 시집. 한국어판 '충분하다'는 짐보르스카가 생전에 출간한 마지막 시집 '여기'와 사후에 출간된 '충분하다' 전체를 묶은 책이다. 주어도 묵적어도 없는 "충분하다"라는 미완성의 문장은 시인이 자신에게,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였으리라. <문학고지서사·1만3000원>

어린이 책

▲똑똑한 물의 비밀=재미있고 흥미진진한 40가지 실험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며 과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 '똑똑한 물의 비밀'에서는 키친타월 한 장으로 간이 정수기를 만들고, 풍선 하나로 말뚝과 썰물의 원리를 아는 등 물의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씩 찾아간다. <파란자전거·9800원>

▲내가 잠든 동안 너 뭐 할 거야?=겨울과 밤, 잠과 죽음이 같은 선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 특유의 감성과 삶과 죽음, 친구와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하며 산토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 보는 고슴도치에게서, 그에 답하는 산토끼의 속마음에서 아이와 함께 삶과 죽음,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볼거리들을 찾을 수 있다. <풀빛·1만원>

▲그림으로 보는 기후 말뚝 사전=지리 과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후'와 '지형' 가운데 중요한 용어만 골라 그림



으로 보여주는 '용어 설명집'. 기후와 지형을 두 권으로 각각 나눠냈다. 초등 3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교과 내용을 두루 담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학습 보조용으로 알맞다. <사계절·각 권 1만1000원, 1만2000원>

▲설마 내가 프린세스?=많은 여자아이들이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소설 속에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해 재미나게 구성한 이야기책. 1권 집에서 개니 마리 앙투아네트, 2권 위기에 빠진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프린세스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세계사에 대한 공부 욕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학수첩 리틀북·각 권 1만2000원>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